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약 4:13-17

말씀선포 Sermon 짧은 인생속에서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함께

다함께

김주연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5월 21일	5월 28일
전주은	이우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하지 않을 때 혼계를 하게 됩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든지, 시험기간임에도 놀고만 있다든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잘 씻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고, 또 서 있는 자리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잔소리로 들릴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훈육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보지 못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육의 과정에서 생길 오해들도 있습니다. 마치 나는 무언가를 잘 못하는 자식처럼 여겨져서 주눅들고 소심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상처가 되고, 그러한 상처는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권위에 위축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안 하면 늘 혼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세상에서 잔뜩 상처받고 주님 앞에서 서면서도 도리어 위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야, 괜찮다. 애 썼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게는 내가 더 소중한!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아. 나와서 깊은 사귄 속에 들어오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성취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 받기에 충분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